



오늘과 내일

농촌이 도시에게 하는 말 (상)

신 동 우

군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는 농촌이야. 난 너(도시)에게 할 말이 있어.

나는 너와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해.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내 말이 너에게 고풍한 외침으로 들리겠지. 나의 바람은 절실해. 하지만 나와 너의 공존의 영역은 줄어들고 있어. 그게 내 생각만은 아니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와 나의 격차는 더 커졌고, 나는 점점 소멸하고 있어. 여북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소멸을 그들의 선택으로 순위를 매겼을 정도야. 그런 나와 가까이 있는 너도 당연히 내일을 걱정하는 신세가 된 거지. 사람들이 사람 수 늘리기에 죽기 살기 하는 것을 보면 서글퍼. 혹자는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 하고 혹자는 큰 너를 중심으로 인구수가 다시 채워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해. 언뜻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아니 잘 모르겠어. 내 눈에는 '방석뱀기 게임' 또는 '제로섬 게임' 같거든.

그동안 너와 나 사이에 알게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분명해. 너와의 공존 방식이 어긋났거나 너와의 소통에 이상이 생긴 거겠지. 아니 우리 사이에 작동했던 다수의 점선 회로가 고장 난 것일 수도 있어. 너나 나나 공존의 해법을 못 찾았거나 찾고 있는 중이거나 공존의 해법 찾기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고. 변화에 밀려 공존의 방식을 제때 구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 지금보다 나은 공존의 방식을 서로가 찾아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오징어게임'처럼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인 듯도 해.

그러니 포기는 이르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야. 내가 잘 나갈 때보다 내가 살이 쏘 빠지고 머리가 성겨서 좀 초라해진 것은 사실이야. 기본 상 그럴 수 있을 터이지만, 돌아켜봐. 없어진 촌락은 있어도 없어진 나는 없어. 앞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은 더 줄어들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 감소세가 하방 안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이유는 해마다 나를 찾아 보급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매년 50만 정도가 되고 나를 지켜주던 농사꾼의 자식들이 조금씩 나를 찾아 기대기 때문이야. 또 '스파르탄' 열병이 나에게 더 세게 불 것이라는 풍문도 무성해. 나에게 있던 젊은 친구들이 나를 심심치 않게 찾는 이유야. 고마운 일이지. 오래된 나무에 새잎이 돋을양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 여전히 불안감이 엄습해. 그럴 때면 두통에 몸서리를 치지. 그런 날이 내가 보고 싶은 날이야. 네 손의 온기가 더 그리워지는 거지. 관계를 정상화하든, 다른 좋은 길을 모색하든 우리에겐 대의고 정언 명령이야. 마지막 공존의 룰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너와 나를 위해서.

너도 알 거야. 네가 압축 고성장한 것은 이촌향도의 결과물이야. 서울의 토박이 비율이 5%가 안 되지만 전북 전주에는 40~45% 수준이잖아. 대도시일수록 나의 분신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나는 일자리를 찾아 너한테 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지. '돈 못 벌면 안 돌아오겠다'고 너에게로 간 사람들은 이내 먹을거리가 없어서, 잘 집이 없어서 신음했어. 편치 않았지. 낱을 새며 편지를 쓰며 위로하기도 했지. 그리고 결심했어. 그래서 통일벼, 비닐하우스... 그런 일들

을 마구마구 벌인 거지. 너의 파골이 상점한 모습이 싫었거든. 늘 식탁에 오르는 쌀, 배추, 마늘, 고추, 돼지같은 걸 길러왔지. 그 값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어땠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일념뿐.

그뿐이었단가? 네가 농산물 수입에 무덤덤했어도, 차가운 경제 논리만을 들이댔어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했어. 농산물 가격을 관리하는 정부마저 믿지 않았어. 나에게 너에게 간 형제자매들이 더 소중했지.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니... 화가 났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어떤 언급도 안했다는 거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고백을 바랐거든. 눈물이 났어. 개의치 않고 너는 뭐도 보지 않고 달렸어. 너는 자본과 사람, 에너지를 매개로 팔색조마냥 진화했지. 너의 살림살이는 더 나아졌어. 그즈음 네 동네에서 양보다 질을 따지는 유행이 생겼을 거야. 갑자기 판이 바뀐 거지.

바뀐 판에서 나는 공존의 복원을 간절히 바랐지. 88 올림픽, 해외여행 자유화, 마이하 붐이 일었던 그때였어. 맛있는 농산물,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은 시장에서 버티기 힘들었어. 정말 빠른 속도로 '먹다'에서 '즐기다'로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금 살아나는 듯했어. 농산물 직거래가 유행하고 포장 단위 농산물이 흥수처럼 너에게로 들어갔지. 나는 주저하지 않고 너의 서너 평 판매대에서 춤을 추었지. 너는 그 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 비록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너는 시도 때도 없이 농지를 원했어.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 공존은 다시 어그러졌고. <다음 계속>